

#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간 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Maternal Parenting, Mother-Adolescent Conflict, and Adolescent Self-Esteem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 윤지은\*

경원대학교 아동학과

겸임교수 최미경\*\*

Department of Consumer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 Yoon, Ji-Eun

Department of Child Studies, Kyungwon University

Plural Professor : Choi, Mi-Kyung

##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maternal parenting, mother-adolescent conflict, and middle adolescents' self-esteem with a sample of 271 high school students enrolled in 2nd year at high school in Seoul, and their mothers. Data was analysed using correlations and regression analyses. Maternal affection, monitoring and reasoning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and maternal physical abuse and neglect were negatively related with adolescent self-esteem. Maternal over-expectation and intrusiveness were not related with adolescent self-esteem in boys, but were negatively related with adolescent self-esteem in girls. In both adolescents' and mothers' report, mother-adolescent conflict was related negatively with adolescent self-esteem. In mothers' report, mother-adolescent conflict was not related with adolescent self-esteem in boys, but was negatively related with adolescent self-esteem in girls. In adolescents' report, maternal affection, monitoring and reasoning were negatively related with mother-adolescent conflict, which maternal over-expectation, intrusiveness, neglect, and physical abuse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mother-adolescent conflict. In mothers' report, maternal affection, monitoring and reasoning were negatively related with mother-adolescent conflict. Mediating roles of mother-adolescent conflict in relation of maternal parenting and adolescent self-esteem were examined. In adolescents' report, mother-adolescent conflict perceived by male adolescents played a mediating role between maternal monitoring, reasoning and physical abuse, representatively, and adolescent self-esteem. And mother-adolescent conflict perceived by female adolescents played a mediating role between maternal parenting with the expectation of maternal affection and adolescent self-esteem. In mothers' report, mother-adolescent conflict perceived by mothers only played mediating role between maternal monitoring and adolescent self-esteem. So, mediating roles of mother-adolescent conflict were more emphasized in the adolescents' report than in the mothers' report. Therefore, the fact that maternal parenting except affection affects the adolescent self-esteem indirectly through mother-adolescent conflict can be found. Implying that maternal affection is crucial in implying positive self-esteem of adolescents.

▲주요어(Key Words) : 어머니의 양육(maternal parenting), 모-청소년자녀간 갈등(mother-adolescent conflict), 자아존중감(self-esteem)

\* 주 저 자 : 윤지은 (E-mail : jlyje74@hanmail.net)

\*\* 교신 저자 : 최미경 (E-mail : dmkchoi@hanmail.net)

## I. 서 론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다.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적응 및 건강한 인성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나아가 긍정적인 자기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지되어 왔다(Harter, 1983; Manning, 1989; Wylie, 1979).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하는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특히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존중, 관심, 수용 및 평가에 반영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와 자신의 성공적인 경험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발달한다(Cooley, 1902; Coopersmith, 1967; Johnson, Shulman, & Collins, 1991; Rosenberg, 1979).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들은 이들에게 있어 중요한 타인인 부모와 관련지어 연구되어오고 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수용 및 온정이나 애정적 양육행동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해 왔다(김문혜·강문희, 1999; 도현심·최미경, 1998; 박경리·김경연, 2001; Eaton, 1997; Richards, Gitelson, Petersen, & Hurtig, 1991). 반면, 부모의 거부적이거나 제재적 양육행동과 권위적 양육행동은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시키고(박영애, 1995; 오순환, 1991; Glasgow, Dombusch, Troyer, Steinberg, & Ritter, 1997; Litovsky & Dusek, 1985), 통제적인 양육은 자아존중감과는 관련이 없다는 다소 상이한 연구 결과들을(김경연, 1987; 도현심·최미경, 1998; 손화희·윤종희, 1990; Young, 1993)내어 왔다. 또한 허용적 혹은 방임적 양육행동 역시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박정선, 1985; Hill, 1980),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고해 오고 있어(도현심·최미경, 1998; 박영애, 1995; Young, 1993) 연구자들 간의 불의치한 결과를 나타내어 오고 있다. 이처럼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보아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그 대상이 주로 아동기에 국한되고,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 초기로의 전환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드물게 발표되었을 뿐, 청소년 중기나 후기를 대상으로 양자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은 아동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중요함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 중기를 대상으로 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아동기로 한정되어 온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청소년 중기로 확장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생리적 발달과 함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므로(Steinbeig, 1981), 청소년들은 내·외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 자신과 그들이 속한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이러한 변화들은 특히 주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청소년기 동안 부모와 청소년은 서로 다른

욕구와 관심사로 인해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감소하고, 부모-자녀 관계는 보다 덜 애정적이며 덜 긍정인 관계로 되어간다. 뿐만 아니라 이전과 달리 청소년기 동안 부모-자녀간 갈등이 커지고, 증가된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은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유계숙, 1998; Silverberg & Steinberg, 1990). 부모-자녀간 갈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국외에서 부모-자녀간 갈등의 시기, 갈등 유형, 갈등의 원인 등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고, 더불어 부모-자녀간 갈등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도 보고 되고 있다(Criss, Petti, Gates, Dogde, & Lapp, 2002; Hill, 1993; Ruter & Conger, 1995). 국내에서도 부모-자녀간 갈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몇몇 연구들(김수연, 1997; 이정숙, 1992; 이주옥, 1994)이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간 갈등을 다룬 국내 연구들은 주로 갈등 유형, 갈등 해결방식 및 갈등에 관련된 변인들 각각을 살펴보는 정도에 그칠 뿐, 아직까지 국외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부모-자녀간의 갈등과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내·외연구들은 대부분 부모-자녀간 갈등이 주로 청소년기에 급격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맷는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자주 발생한다는 공통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부모-자녀간 갈등에 관한 연구가 청소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내·외의 부모-자녀간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국외를 중심으로 부모-자녀간 갈등과 청소년의 기능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연구해 왔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 갈등은 청소년의 부적응과 손상, 수용되지 않은 행동, 학교관련 행동문제, 청소년 기능에서의 어려움과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들(Bijur, Kurzon, Hamelsky, & Pdwer, 1991; Forehand, Long, Brody, & Fauber, 1986, 1988, & 1991; Tomlison, 1991)을 보고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외의 연구들 가운데서도 부모-자녀간 갈등과 심리적인 요인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 연구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자아존중감은 부모-자녀간 갈등과 관련될 수 있는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에 속하는 하위요인 정도로만 하여 탐색되어 오고 있어(Danel, 1998; Slater & Haber, 1984), 청소년기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국외연구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부모-자녀간 갈등을 주제로 다룬 국내연구들에서도 부모-자녀간 갈등에 관련된 변인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갈등의 종류와 갈등의 정도나 갈등의 해결방식 등에만 초점을 두어 진행되어 왔을 뿐(김경숙, 1987; 김수연, 1997; 송경란, 1998; 이주옥, 1994), 부모-자녀간 갈등과 관련된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 즉 자아존중감, 불안, 우울, 그리고 학교문제 등을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는 보고 된 바가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아존중감의 발달이 청소년에게 중요한 타인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발달하기 때문에 청

소년기 부모-자녀관계에서 일어나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인 부모-자녀간 갈등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리라 가정되고, 양자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을 탐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부모-자녀간 갈등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중요함을 보고하는 연구결과(이사라, 2001)에 기초할 때, 청소년기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자녀관계에서 일어나는 이전과는 다른 부정적 변화인 부모-자녀간 갈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적인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청소년 자녀간 갈등을 관련시켜 살펴 본 연구들은 아직까지는 국내·외적으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나, 청소년기의 특성과 관련하여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 연구들(전광희, 1992; 전귀연, 1998; Smetana, 1989)과 비행이나 가출 등의 청소년 문제를 주제로 한 연구들 중에서 가족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 본 연구들(김주희, 1989; 최선남, 1995; Jacob, 1975)을 통해 부정적인 가족과 부모로부터 수많은 가족갈등 및 부모-자녀간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고 되고 있어(Criss et al., 2002; Hill, 1993) 부모-자녀간 갈등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 부모-자녀간 관계에서 갈등이 증가한다는 결과들을 보고하는 국외의 연구결과들(Montemayor, 1982, & 1986; Steinberg, 1988)로 부터도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모-청소년 자녀간 갈등과 관련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주는 두 요인인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양자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청소년기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돋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간 갈등 및 자아존중감은 서로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간의 관련성을 고려해 볼 때,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기에 증가하는 부모-자녀간 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된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청소년 자녀간 갈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청소년 자녀간 갈등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한편, 부모-자녀간 갈등에 관한 대부분의 국내·외연구들에서는 부모-자녀간 갈등과 관련된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요인을 탐색한 연구들 대부분이 이혼, 별거 및 편부모 등의 결손 및 해체 가정(이삼연, 2002; 정현숙, 1993; Kelly, 1988; Reich, Earls, & Powell, 1988) 또는 가출, 비행이나 범죄 등의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김정수·류진혜, 2001; 민하영, 1992; 박태수, 1997; Justice & Duncan, 1976).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일반 가정의 부모와 청소년의 부모-자녀간 갈등을 이해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른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자 한다. 또한, 부모-자녀간 갈등을 주제로 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자기 보고만을 이용하여왔다는 제한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부모-자녀간 갈등이 부모와 청소년 자녀 서로 간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므로 청소년과 어머니 모두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측면이 간과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 갈등에 관한 측정을 청소년과 어머니 모두의 입장에서 측정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부모-청소년 자녀간 갈등이 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양육자이며 접촉의 기회가 많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들(Ellis-Schwabe & Thornburg, 1986; Motemayor & Hason, 1985; Steinbegr, 1987)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자녀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자 한다. 또한 남녀 청소년 간에도 차이가 있으리라 가정되므로 남녀 청소년을 구분하여 분석해 보고자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청소년 중기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2학년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모-자녀간 갈등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한다. 이를 위해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간 갈등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모-자녀간 갈등과 각각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모-자녀간 갈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한다.

###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모-자녀간 갈등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모-자녀간 갈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4. 모-자녀간 갈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의 강남구에 위치한 S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청소년 271명(남: 156명, 여: 115명)과 그들의 어머니들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에서 일반 청소년이 아

닌 특수 상황의 집단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간 갈등을 살펴본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모-자녀간 갈등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극소화시키기 위하여 친어머니인 경우로만 선정하였다.

## 2. 조사도구

###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허묘연(2000)이 개발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감독,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및 애정의 8개의 요인(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평가하는 Likert식 4점 척도이다.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alpha$ 는 8개의 요인 중 비일관성 요인을 제외한 7개의 요인들에서 .73~.84로 적절한 수준을 나타내었고, 비일관성 요인은 .55의 낮은 신뢰도를 나타내어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 2) 모-자녀간 갈등 척도

모-자녀간의 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Prinz, Foster, Kent와 O' Leary(1979)가 개발한 모-자녀간 불평 및 불만 척도(CBQ: Conflict Behavior Questionnaire)를 번안한 것이다. CBQ는 일반적인 갈등과 관련된 행동의 묘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모-자녀간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을 내용으로 하는 28개의 문항과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을 내용으로 하는 16개 문항 등 총 44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문항들은 본 연구에서 청소년용과 어머니용으로 나뉘어 조사되었다. CBQ 척도의 문항들은 '예' 또는 '아니오'형식으로 답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측면에서의 불평 및 불만의 점수는 부정적인 문항에서 '예'라고 답한 문항 수와 긍정적인 문항에서 '아니오'라고 답한 문항 수를 합산하여 산출된다. Cronbach's  $\alpha$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는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경우 청소년 보고와 어머니 보고가 각각 .89와 .82이었고,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고와 어머니 보고가 각각 .82와 .73이었다.

### 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Rosenberg Self-Esteem Scale을 번안한 박선영·도현심(199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을 평가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널리 사용되어 왔다(박선영·도현심, 1998; 홍성훈, 2002; In-

derbetzen-Pisaruk, 1992; Moore & Schultz, 1983). 이 척도의 문항들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이며, Cronbach's  $\alpha$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는 .79이었다.

##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002년 10월 15일에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S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배부된 총 380부의 질문지 가운데 279부가 회수되었으며, 친부나 친모가 아니거나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총 8부를 제외한 총 271부만을 본 연구의 최종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조사도구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모-자녀간 갈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단순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양자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과잉기대 및 과잉간섭 요인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남녀 청소년이 유의한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어머니의 애정, 감독 및 합리적 설명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남:  $r=.19\sim.41$ ,  $p < .001\sim.05$ , 여:  $r=.35\sim.58$ ,  $p < .001$ ), 어머니가 애정적이거나 감독을 많이 하거나, 합리적 설명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남:  $r=-.19\sim-.41$ ,  $p < .001\sim.05$ , 여:  $r=-.23\sim-.44$ ,  $p < .001\sim.05$ ), 어머니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할수록, 청소년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 양육행동의 몇몇 요인들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는 청소년의 성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발견되었다. 어머니의 과잉기대 및 과잉간섭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양자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r=-.19\sim-.27$ ,  $p < .01\sim.05$ ), 어머니가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을 많이 할수록 여자 청소년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lt;표 1&gt;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

(남/ 여)

어머니의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애정	.41*** / .58***
감독	.19* / .35***
합리적 설명	.21* / .38***
과잉기대	.09 / -.19*
과잉간섭	.08 / -.27**
학대	-.19* / -.23*
방임	-.41*** / -.44***

주: 남자 청소년은 156명, 여자 청소년은 115명임.

\* $p<.05$ , \*\* $p<.01$ , \*\*\* $p<.001$ .

## 2. 모-자녀간 갈등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모-자녀간 갈등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자녀간 갈등의 한 하위 요인인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에서는 청소년 보고와 어머니 보고가 유사한 양상을 보였고, 남녀 청소년 모두 양자간 관계의 방향이 일치하였다. 반면, 모-자녀간 갈등의 또 다른 하위 요인인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성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경우, 청소년이 보고한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남녀 청소년 모두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남:  $r=-.29$ ,  $p < .001$ , 여:  $r=-.42$ ,  $p < .001$ )을 나타내어,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이 높을수록 남녀 청소년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보고한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도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남:  $r=-.19$ ,  $p < .05$ , 여:  $r=-.36$ ,  $p < .001$ )을 보여, 어머니가 지각하는 청소년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이 높을수록 남녀 청소년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경우, 청소년이 보고한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남녀 청소년 모두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남:  $r=-.29$ ,  $p < .001$ , 여:  $r=-.44$ ,  $p < .001$ )을 나타내어, 어머니와 청소년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이 높을수록 남녀 청소년은 모두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 보고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여:  $r=-.30$ ,  $p < .01$ )을 보여, 어머니들이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을 높게 지각할수록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왔다(<표 2>).

&lt;표 2&gt; 모-자녀간 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

(남/ 여)

모-자녀간 갈등	자아존중감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 청소년 보고	-.29*** / -.42***
□ 어머니 보고	-.19* / -.36***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 청소년 보고	-.29*** / -.44***
□ 어머니 보고	-.16 / -.30**

주: 남자 청소년은 151-156명, 여자 청소년은 111-115명임.

\* $p<.05$ , \*\* $p<.01$ , \*\*\* $p<.001$ .

##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녀간 갈등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녀간 갈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 청소년 모두 전반적으로 양자간의 관계는 유사한 경향이 있었으나, 몇몇 요인들의 경우에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간에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어머니가 보고한 모-자녀간 갈등에 비해 청소년이 보고한 모-자녀간 갈등과 더욱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어머니 양육행동과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 보고에서는 남녀 청소년이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 반면, 어머니 보고에서는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청소년 보고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 감독 및 합리적 설명은 남녀 청소년의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남:  $r=-.25 \sim -.62$ ,  $p < .001 \sim .01$ , 여:  $r=-.41 \sim -.55$ ,  $p < .001$ )을 나타냈고, 어머니의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및 방임은 남녀 청소년의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과 유의한 정적 상관(남:  $r=.33 \sim .60$ ,  $p < .001$ , 여:  $r=.40 \sim .56$ ,  $p < .001$ )을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가 애정, 감독 및 합리적 설명을 많이 보일수록 남녀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이 낮고, 어머니가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및 방임을 많이 할수록 남녀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보고의 경우, 어머니의 감독은 남자 청소년의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여:  $r=-.25$ ,  $p < .01$ )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과잉간섭은 남자 청소년의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남:  $r=.25$ ,  $p < .01$ )이 나타난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청소년 보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녀 청소년 모두 어머니의 애정은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과 부

적으로 유의한 상관(남:  $r=-.31$ ,  $p < .001$ , 여:  $r=-.27$ ,  $p < .01$ )을, 어머니의 방임은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남:  $r=.16$ ,  $p < .05$ , 여:  $r=.23$ ,  $p < .05$ )을 보여, 어머니가 애정적일수록 청소년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낮아지고, 어머니가 청소년을 방임할수록 청소년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녀 청소년 모두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및 학대는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경우, 청소년 보고에서 남녀 청소년 모두 어머니의 모든 양육행동 요인들은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반면, 어머니 보고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남:  $r=-.48$ ,  $p < .001$ , 여:  $r=-.44$ ,  $p < .001$ ) 및 감독(남:  $r=-.26$ ,  $p < .01$ , 여:  $r=-.38$ ,  $p < .001$ )은 남녀 청소년의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어머니의 과잉기대는 남녀 청소년 모두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하여,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만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은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과 유의한 부적 상관(남:  $r=-.30$ ,  $p < .001$ )을, 어머니의 과잉간섭(남:  $r=.23$ ,  $p < .01$ ) 및 학대(남:  $r=.23$ ,  $p < .01$ )는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녀간 갈등간의 상관관계

(남/ 여)

		모-자녀간 불평 및 불만			
어머니의 양육행동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청소년 보고	어머니 보고	청소년 보고	어머니 보고
애정	$-.62^{***}/-.55^{***}$	$-.31^{***}/-.27^{**}$	$-.67^{***}/-.64^{***}$	$-.48^{***}/-.44^{***}$	
감독	$-.25^{**}/-.41^{***}$	$-.11 / -.25^{**}$	$-.27^{**}/-.57^{***}$	$-.26^{**}/-.38^{***}$	
합리적설명	$-.46^{***}/-.41^{***}$	$-.14 / -.17$	$-.29^{***}/-.38^{***}$	$-.30^{***}/-.18$	
과잉기대	$.33^{***}/.40^{***}$	$.10 / -.06$	$.29^{***}/.31^{**}$	$.14 / .11$	
과잉간섭	$.60^{***}/.56^{***}$	$.25^{**}/.09$	$.42^{***}/.46^{***}$	$.23^{**}/.17$	
학대	$.35^{***}/.46^{***}$	$.11 / .09$	$.36^{***}/.35^{***}$	$.23^{**}/.13$	
방임	$.42^{***}/.56^{***}$	$.16^* / .23^*$	$.44^{***}/.59^{***}$	$.29^{***}/.42^{***}$	

주: 남자 청소년은 156명, 여자 청소년은 113-115명임.

\* $p < .05$ , \*\* $p < .01$ , \*\*\* $p < .001$ .

#### 4.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에서 모-자녀간 갈등의 매개적 역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모-자녀간 갈등이 미치는 매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세 가지 단계의 접근 모델에 근거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에 의하면, 매개적 역할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변인들 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야 하는 기본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어느 한 변인의 매개로서의 기능은 Baron과 Kenny가 제안하는 매개를 실험하기 위한 회귀방정식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단순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해야 하며, 두 번째 단순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해야만 하고, 세 번째 중다회귀분석 결과, 즉,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새로운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한 결과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이 감소하고,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세 번째 회귀분석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사라졌을 경우는 '완전 매개', 유의성의 정도가 단지 감소된 경우는 '부분 매개'라고 한다.

본 연구 변인들의 경우, 세 가지 주요 변인들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모-자녀간 갈등 및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는 어머니 보고에서의 몇몇 변인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변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표 1>, <표 2>, <표 3>), Baron과 Kenny가 제안한 기본조건을 충족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세 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독립변인(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매개변인(모-자녀간 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하였고, 둘째, 독립변인(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종속변인(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독립변인(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설명력이 매개변인(모-자녀간 갈등)이 통제되었을 때 감소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모두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매개적 효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모-자녀간 갈등 가운데 하나인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매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 보고와 어머니 보고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 보고

청소년이 보고한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종속변인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어머니의 감독( $\beta=.19$ ,  $p < .05$ ), 합리적 설명( $\beta=.21$ ,  $p < .05$ ) 및 학대( $\beta=-.19$ ,  $p < .05$ ) 등 각 변인의 영향력을 어머니의 감독, 합리적 설명 및 학대 각각과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에는 더 이상 유의적이지 않았다. 즉,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어머니의 감독, 합리적 설명 및 학대 등 각각의 하위요인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

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감독, 합리적 설명 및 학대 등 각 하위요인과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10%, 9% 그리고 9%이었다(<표 4>).

한편, 모-자녀간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어머니의 애정, 과잉기대, 과잉간섭 및 방임 등의 각각의 하위요인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회귀분석(β)(청소년 보고)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감독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25*	.19*	.12 -.26**
R <sup>2</sup>	.06	.04	.10
F	10.17**	5.40*	7.82**
합리적 설명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46***	.21*	.08 -.24**
R <sup>2</sup>	.21	.04	.09
F	40.20***	6.67*	7.05*
학대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35***	-.19*	-.10 -.25**
R <sup>2</sup>	.12	.04	.09
F	21.36***	5.50*	7.31**

\*p<.05, \*\*p<.01, \*\*\*p<.001.

남자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모-지녀간 갈등의 매개적 역할이 완전 매개만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완전 매개와 부분 매개가 모두 나타났다. 종속변인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어머니의 과잉기대( $\beta=-.19$ ,  $p < .05$ ), 과잉간섭( $\beta=-.27$ ,  $p < .01$ ), 및 학대( $\beta=-.23$ ,  $p < .05$ ) 등 각 변인의 영향력은 어머니의 과잉기대, 과잉간섭 및 학대 각각과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에는 더 이상 유의적이 아니었다. 즉,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어머니의 과잉기대, 과잉간섭 및 학대 등 각각의 하위요인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과잉기대, 과잉간섭 및 학대 등 각 하위요인과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17%, 18%, 그리고 18%이었다. 종속변인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어머니의 감독, 합리적 설명, 및 방임 등 각 변인의 영향력은 어머니의 감독, 합리적 설명 및 방임 각각과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에는 어머니의 감독, 합리적 설명 및 방임 등의 각 변인만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보다 감소되었다( $\beta=.35$ ,  $p < .001$

$\rightarrow \beta=.22$ ,  $p < .05$ ;  $\beta=.38$ ,  $p < .001 \rightarrow \beta=.25$ ,  $p < .01$ ;  $\beta=-.44$ ,  $p < .001 \rightarrow \beta=-.30$ ,  $p < .01$ ). 즉,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어머니의 감독, 합리적 설명 및 방임 등 각각의 하위요인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감독, 합리적 설명 및 방임 등 각 하위요인과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21%, 23%, 그리고 24%이었다(<표 5>).

한편,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어머니의 애정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회귀분석(β)(청소년 보고)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감독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41***	.35***	.22* -.33**
R <sup>2</sup>	.17	.13	.21
F	22.82***	15.56***	14.71***
합리적 설명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41***	.38***	.25** -.31**
R <sup>2</sup>	.17	.15	.23
F	22.85***	18.85***	15.84***
과잉기대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40***	-.19*	-.03 -.41***
R <sup>2</sup>	.16	.04	.17
F	22.10***	4.07*	11.40***
과잉간섭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56***	-.27**	-.05 -.39**
R <sup>2</sup>	.31	.07	.18
F	51.54***	8.30**	11.49***
학대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46***	-.23*	-.04 -.40**
R <sup>2</sup>	.21	.05	.18
F	30.63***	5.88*	11.48***
방임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56***	-.44***	-.30** -.25*
R <sup>2</sup>	.31	.19	.24
F	51.60***	26.25***	16.73***

\*p<.05, \*\*p<.01, \*\*\*p<.001.

### (2) 어머니 보고

어머니 보고에 의해 조사된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경우, 종속변인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어머니의 감독의 영향력은 어머니의 감독과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에는 어머니의 감독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보다 감소되었다( $\beta=.35$ ,  $p < .001 \rightarrow \beta=.29$   $p < .01$ ). 즉,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이 어머니의 감독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감독과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은 21%이었다(<표 6>).

한편,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어머니의 애정,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및 방임 등의 각각의 요인과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회귀분석( $\beta$ )(어머니 보고)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감독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25**	.35***	.29** -.29**
R <sup>2</sup>	.06	.13	.21
F	7.36**	15.56***	14.07***

\*\* $p < .01$ , \*\*\* $p < .001$ .

### 2)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매개적 효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모-자녀 갈등 가운데 다른 하나인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이 미치는 매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 보고와 어머니 보고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 보고

청소년 보고에 의해 조사된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종속변인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어머니의 감독( $\beta=.19$ ,  $p < .05$ ), 합리적 설명( $\beta=.21$ ,  $p < .05$ ) 및 학대( $\beta=-.19$ ,  $p < .05$ ) 등 각 변인의 영향력은 어머니의 감독, 합리적 설명 및 학대 각각과 청소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에는 더 이상 유의적이 아니었다. 즉,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어머니의 감독, 과잉기대, 과잉간섭 및 학대 등 각각의 하위요인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감독, 과잉기대, 과잉간섭 및 학대 등 각 하위요인과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21%, 20%, 20%, 그리고 20%이었다. 종속변인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 및 방

학대 등 각각의 하위요인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감독, 합리적인 설명 및 학대 등 각 하위요인과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10%, 10%, 그리고 9%이었다(<표 7>).

한편,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어머니의 애정, 과잉기대, 과잉간섭 및 방임 등의 각각의 하위요인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회귀분석( $\beta$ )(청소년 보고)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감독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27**	.19*	.12 -.25**
R <sup>2</sup>	.07	.04	.10
F	11.60**	5.40*	7.77**
합리적 설명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29***	.21*	.13 -.24**
R <sup>2</sup>	.08	.04	.10
F	14.04***	6.67*	7.86**
학대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36***	-.19*	-.09 -.25**
R <sup>2</sup>	.13	.04	.09
F	23.20***	5.50*	7.24**

\* $p < .05$ , \*\* $p < .01$ , \*\*\* $p < .001$ .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모-지녀간 갈등의 매개적 역할이 완전 매개만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부분 매개도 나타났다. 종속변인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어머니의 감독( $\beta=.35$ ,  $p < .001$ ), 과잉기대( $\beta=-.19$ ,  $p < .05$ ), 과잉간섭( $\beta=-.27$ ,  $p < .01$ ) 및 학대( $\beta=-.23$ ,  $p < .05$ ) 등 각 변인의 영향력은 어머니의 감독, 과잉기대, 과잉간섭 및 학대 각각과 청소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에는 더 이상 유의적이 아니었다. 즉,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어머니의 감독, 과잉기대, 과잉간섭 및 학대 등 각각의 하위요인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감독, 과잉기대, 과잉간섭 및 학대 등 각 하위요인과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21%, 20%, 20%, 그리고 20%이었다. 종속변인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 및 방

임의 영향력은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 및 방임과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에는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 및 방임만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보다 감소되었다( $\beta=.38, p < .001 \rightarrow \beta=.25, p < .01; \beta =-.44, p < .001 \rightarrow \beta=-.28, p < .01$ ). 즉,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 및 방임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과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25%와 24% 이었다(<표 8>).

한편,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어머니의 애정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회귀분석( $\beta$ )(청소년 보고)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감독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57***	.35***	.15 -.36**
R <sup>2</sup>	.32	.13	.21
F	53.04***	15.56***	14.21***
합리적 설명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38***	.38***	.25** -.34***
R <sup>2</sup>	.14	.15	.25
F	18.51***	18.85***	17.85***
과잉기대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31**	-.19*	-.05 -.42***
R <sup>2</sup>	.10	.04	.20
F	12.00**	4.07*	13.23***
과잉간섭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46***	-.27**	-.08 -.40***
R <sup>2</sup>	.21	.07	.20
F	29.74***	8.30**	13.43***
학대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35***	-.23*	-.09 -.41***
R <sup>2</sup>	.13	.05	.20
F	16.23***	5.88*	13.54***
방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59***	-.44***	-.28* -.28*
R <sup>2</sup>	.35	.19	.24
F	61.45***	26.25***	17.29***

\* $p < .05$ , \*\* $p < .01$ , \*\*\* $p < .001$ .

## (2) 어머니 보고

어머니 보고에 의해 조사된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여자 청소년의 경우, 종속변인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어머니의 감독의 영향력은 어머니의 감독과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에는 어머니의 감독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보다 감소되었다( $\beta=.35, p < .001 \rightarrow \beta=.28, p < .01$ ). 즉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이 어머니의 감독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감독과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은 16%이었다(<표 9>).

한편,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어머니의 애정,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및 방임 등의 각각의 요인과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회귀분석( $\beta$ )(어머니 보고)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감독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38***	.35***	.28** -.20*
R <sup>2</sup>	.14	.13	.16
F	18.59***	15.56***	10.18***

\* $p < .05$ , \*\* $p < .01$ , \*\*\* $p < .001$ .

## IV.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기 동안 부모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부모-자녀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청소년기 동안 부모-자녀관계에서 갈등이 증가한다는 측면들을 고려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 모-자녀간 갈등 및 자아존중감 등의 세 변인들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관련 변인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아동기나 청소년 초기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중기에 속한 남녀 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애정, 감독 및 합리적 설명은 자아존중감과 정적 관계를 나타낸 반면,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애정적·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결과들(박영애·정옥분; 1996; Gecas, & Schwalbe, 1986)과 일치한다. 이는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s)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아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진(Hoelter, 1984; 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의 특성과 관련지어, 청소년이 자신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타인인 어머니로부터 수용되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받고, 이를 지각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되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이라 해석된다. 반면,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결과는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아동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지각이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윤혜미, 1997)와 일치하고, 어머니가 방임적으로 양육 할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결과들(박영애, 1995; Young, 1993)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몇몇 관계는 남녀 청소년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과잉기대 및 과잉간섭은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거부·제재(도현심·최미경, 1998)나 통제(김경연, 1987; Young, 1993)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상관이 없다는 연구결과들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반면, 어머니의 통제가 자아존중감을 높여준다는 연구결과(김경연, 1993; Anderson & Hughes, 1989)와는 다소 상치된다. 이에 반해,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양자간에 유의한 부적 관계가 나타나, 여아들이 어머니가 자신을 더 많이 통제한다고 지각할수록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는 결과(상미현, 1999)와 일치하고, 어머니의 제재가 심할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들(박영애, 1995; 오순환, 1991)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와 같이, 과잉기대 및 과잉간섭의 경우에는 기존 연구들에서의 불일치한 보고들로 한 가지 결론을 내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두 가지 요인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성차가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남아보다 여아의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Felson, & Zielinski, 1989; Gecas, 1971; Kaplan & Pokorny, 1972; Richards, Gitelson, Peterson, & Hurting, 1991)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남아의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들(Gecas, & Schwalbe, 1986; Margolin, Blyth, & Carbone, 1988)도 발견되므로, 성차에 관한 연구는 추후 청소년 연구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 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모-자녀간 갈등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 보고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남녀 청소년 모두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어, 청소년이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을 높게 지각할 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경우에서도 청소년 보고의 결과는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아존중감이 부모와의 갈등이 있을 때에 낮은 것으로 발견된 연구결과(Danel, 1998)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 모-자녀간 갈등은 상대방에 관한 것이든 혹은 어머니와 청소년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든 간에 갈등 그 자체로서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증가하는 부모-자녀간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어머니 보고의 경우, 모-자녀간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는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어, 청소년 보고에 비해 그 유의성은 낮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해,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는 다소의 성차가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의 경우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여 어머니가 여자 청소년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불평 및 불만을 높게 지각할수록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갈등이 모녀간의 관계에서 더 현저하게 표면화되고, 이는 어머니와 청소년기 딸이 모두 표현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우세를 확립하고 직접적 경쟁이 가능하여 더 빈번한 갈등을 겪는다고 보고하는 연구결과들(Montemayor, 1982; Small, 1985)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또한, 어머니가 일반적으로 아들보다 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지만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일어나는 전환이 모녀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어머니의 수용을 더 어렵게 한다는 연구결과(Silverberg & Steninberg, 1987)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간 갈등이 대부분 일상적인 가족 생활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남자 청소년에 비해 일상 생활에서 접촉이 더 잦은 여자 청소년에게서 모녀간 갈등이 더 지각되고, 이러한 모녀간 갈등은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보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모-자녀간 갈등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련성이 청소년 보고가 어머니 보고에 비해 보다 더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부모의 지각보다 아동의 자아개념에 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김성연, 1981)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타인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지만, 어머니의 반응에 반영되어 있는 자신을 청소년이 지각하여 스스로의 평가를 통해 발달하

는 것으로 청소년 개인의 발달과 관련된 것이어서 청소년의 지각에 의한 모-자녀간 갈등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이라 해석된다. 또한, 모-자녀간 갈등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모두 청소년 자신에 의해 평가됨으로써 동일 보고자에 의한 측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감안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청소년들이 갈등을 덜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녀간 갈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자녀간 갈등 중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경우, 청소년 보고에서 남녀 청소년 모두 동일하게 어머니의 애정, 감독 및 합리적 설명이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과 부적관계를, 어머니의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및 방임은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과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청소년 모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모-자녀간 갈등이 낮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부정적일수록 어머니와 청소년간의 갈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어머니 보고의 경우, 어머니의 과잉간섭을 제외한 모든 양육행동 요인들이 남녀 청소년이 보고한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과 유사한 유의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간의 관계에서는 청소년 보고의 경우, 남녀 청소년 모두 어머니의 모든 양육행동 요인이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자 간에 나타난 결과는 청소년이 보고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띠었다. 한편, 어머니 보고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 및 감독은 남녀 청소년의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과 부적관계를 나타낸 반면, 어머니의 과잉기대는 남녀 청소년의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은 남자 청소년의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과 부적 관계가, 어머니의 과잉간섭 및 학대는 이러한 갈등과 정적 관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양자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다소 성차를 발견 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들은 부모-자녀 갈등에 대한 TAT와 사회극을 통한 연구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양육태도로 거부적, 과보호, 무관심, 심한 간섭 및 강요라고 보고한 청소년들의 면접 결과(이정숙, 199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애정, 감독 및 합리적 설명이 모-자녀 간의 낮은 갈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부모의 애정 및 온정, 적합한 자율권의 허용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는 기존 연구결과(Steinberg & Daring, 1994)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어머니가 청소년을 애정적이고 합리적 설명으로 양육할수록 청소년기 모-자녀 갈등은 감소하고 나아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부적응을 줄일 수 있는 것과도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애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갈등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모-자녀간 갈등의 매개적 역할을 탐색해 본 결과, 남녀 청소년이 지각하는 모-자녀간 갈등의 매개적 역할은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과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모두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모-자녀간 갈등의 매개적 역할은 어머니의 감독, 합리적 설명 및 학대 등의 각 요인과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발견되었다.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모-자녀 갈등은 어머니의 과잉기대, 과잉간섭 및 학대 등의 각 요인과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감독, 합리적 설명 및 방임 등의 각 요인과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청소년 간의 다소의 성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어머니의 감독, 합리적 설명 및 학대적 양육행동의 지각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청소년의 모-자녀간 갈등에 의해 보다 더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여자 청소년은 어머니의 애정을 제외한 모든 양육행동 요인들이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청소년기에 증가하는 모-자녀간 갈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과잉기대 및 과잉간섭은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이러한 양육행동의 요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청소년의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에 의해 보다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나타낸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모-자녀간 갈등은 어머니의 애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매개적 역할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애정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어, 기존의 부모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연구결과들(박영애·정옥분, 1996; Gecas, & Schwalbe, 1986)과 같이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는 최적의 양육행동으로 부모의 애정적 양육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는 앞서 나타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녀간 갈등간의 관계에서 모-자녀간 갈등을 낮게 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애정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모-자녀간 갈등의 감소 뿐 아니라 긍정적 자아존중감 발달에도 다른 양육행동 요인들 보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어머니 보고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모-자녀간 갈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모든 요인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모-자녀간 갈등은 어머니의 감독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의 성차가 발견되었다. 즉, 어머니의 감독만이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모-녀간 갈등을 거쳐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 행동은 청소년의 높은 자아존중감 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바람직한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의 애정, 감독 및 합리적 설명과 같은 양육행동이 아동기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모-자녀간 갈등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증가하기 쉬운 부모-자녀간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의 형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기의 낮은 모-자녀간 갈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 증가하는 부모-자녀간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 등과 같은 양육행동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행동, 모-자녀간 갈등 및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모-자녀간 갈등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애정을 제외한 모든 양육행동 요인에서 모-자녀간 갈등의 매개적 역할이 나타났고, 모-자녀간 갈등의 매개적 역할은 청소년 보고에서 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어머니가 지각하는 모-자녀간 갈등에 비해 청소년이 지각하는 모-자녀간 갈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모-자녀간 갈등이 감소되거나 증가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아존중감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우선시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청소년기에 증가하는 부모-자녀간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양육행동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자녀간 갈등 측정 시 비교적 청소년 자녀와 접촉이 잦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더 발생한다는 연구결과(Steinberg, 1987)에 기초하여,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직까지 부모-자녀간 갈등을 살펴본 연구가 부족한 국내 상황에서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통해 모-자녀간 갈등을 살펴본 것은 의미 있는 부분이나, 이를 통해 전반적인 부모-자녀간 갈등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양육에서의 아버지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는 시점을 고려하고, 갈등이 상호간의 관계를 통해 일어남을 고려할 때, 부-자, 부-녀, 모-자, 모-녀의 갈등이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여 아버지를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자녀간 갈등과 관련된 기존연구들이 특정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해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간 갈등을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의 대상이 강남지역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는 데는 제한이 있다. 부모-자녀간 갈등이 지역 및 환경 변인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리라 예상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구대상을 통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어머니와 청소년 간의 관계를 통해서만 부모-자녀간 갈등을 살펴보았는데, 부모-자녀간 갈등이 부모와 자녀의 양자간의 관계를 통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관계와도 관련되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정숙, 1992)에 근거할 때, 형제자매관계가 고려된 가족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심도 있는 청소년기 부모-자녀간 갈등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청소년 중기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양육행동 및 모-자녀간 갈등과 관련된 자아존중감의 발달양상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발달이 한 시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의 변화하는 과정을 연구한다는 것과 부모-자녀간 갈등이 아동 후기 및 청소년 초기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청소년기 중기와 후기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별 비교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설계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청소년기 모-자녀간 갈등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외국의 널리 알려진 척도를 번안하여 수행됨으로써, 모-자녀간 갈등의 발생 상황에서 다소의 문화적 차이를 내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적합한 갈등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본 연구의 몇 가지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기가 부모-자녀간 갈등이 증가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간 갈등과 부모의 양육행동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다른 연구를 찾아보기는 더더욱 힘든 상황에서,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모-자녀간 갈등의 측정에서 갈등이 상호관계를 통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고만을 사용해왔던 기존 연구들에서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어머니 보고까지 이용하여 모-자녀간 갈등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남녀 청소년을 구분함으로써 성별 간에 차이를 발견함으로써 모-자녀간 갈등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연구가 설계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이 아동기에 극한된 것을 청소년 중기로 연장시켜 살펴보고 이들 양자간의 관계에서 청소년기에 증가하는 모-자녀간 갈등의 매개적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들이 갖는 제한점을 보완·확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접 수 일 : 2004년 07월 15일
- 심 사 일 : 2004년 07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10월 07일

### 【참 고 문 헌】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연(1993). 어머니 관련변인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종단적자료의 인과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1), 37-50.
- 김문혜·강문희(1999). 아동의 자아존중감 관련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아동학회지*, 20(4), 195-211.
- 김성연(1981). 부모의 양육태도와 어린이의 자아개념 및 학업 성적과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연(1997).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관련된 변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수, 류진혜(2001). 부-자간 갈등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 와 청소년 비행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8(2), 1-23.
- 김주희(1989). 비행청소년의 이상적 부모관에 관한 연구. 성신 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도현심·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민하영(1992).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웅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경리·김경연(2001). 아동의 영역별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 및 또래수용도의 영향: 단짝친구 지지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19(1), 85-97.
- 박선영·도현심(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4), 229-244.
- 박영애(1995).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애·정옥분(1996).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17(1), 189-212.
- 박정선(1995). 모의 직업 및 지각된 양육태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태수(1997). 청소년 비행의식의 형성배경. *학생생활연구*, 18(1), 77-98.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손화희·윤종희(1990).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연구. *아동학회지*, 11(1), 58-76.
- 송경란(1998). 부모-청소년 자녀간 갈등과 갈등해결방식에 관한 연구-중·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순환(199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 개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계숙(1998). 부모의 권력에 대한 청소년의 자각 양상과 순응 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혜미(1997). 아동의 학대 및 방임 경험이 아동의 부모-자녀관계 자각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 95-120.
- 이사라(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 관계가 아동의 자아개념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삼연(2002). 이혼가정 청소년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37-65.
- 이정숙(1992).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년기 자녀의 갈등.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20, 325-328.
- 이주옥(1994). 청소년 자녀와 부모-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갈등유형, 해석 및 그 해결방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광희(1992). 가족제도의 변동과 청소년의 범죄.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 형사정책연구원.
- 전귀연(1998). 가족구조환경, 물질주의 및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87-103.
- 정현숙(1993).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적응. *아동학회지*, 14(1), 59-75.
- 최선남(1995). 가족환경변인 및 아동기 부모-자녀 결합 형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3), 103.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성흔(2002).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nderson, M., & Hughes, H. M.(1989). Parenting attitudes and the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0, 463-365.
- Bijur, P. E., Kurzon, M., Hamelsky, V. & Pdwer, C.(1991).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adolescent injuries.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12(2), 92-97.
-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Scribner.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Criss, M. M., Pettit, G. S., Gates, J. E., Dodge, K. A. & Lapp, A.(2002). "Family Adversity, positive peer relationship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ChildDevelopment*, 73(4), 1220-1237.
- Danel, T. L.(1998).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s between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9(1), 53-67.
- Eaton, M.(1997). Positive discipline: fostering the self-esteem of

-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53(6), 43-46.
- Ellis-Schwabe, M. & Thornburg, H. D.(1986). Conflict areas between parents and their adolescen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20(19), 59-68.
- Felson, R. B. & Zielinski, M. A.(1989). Children's self-esteem and parent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727-735.
- Forehand, R., Long, N., Brody, G. H. & Fauber, R.(1986). Home predictors of young adolescents' school behavior and academic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7, 1528-1533.
- Gecas, V. & Schwalbe, M. L.(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7-46.
- Glasgow, K. L., Dombusch, S. M., Troyer, L., Steinberg, L. R., & Ritter, P. L., (1997). Parenting styles, adolescents attributions, and educational outcomes in nine heterogeneous high school. *Child Development*, 68(3), 507-529.
- Harter, S.(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E.M.
- Hill, J. P.(1980). The family. In M. Johnson(Ed.), *Toward adolescence: The middle school years. The Seventy-nin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ill, J. P.(1993). Recent advances in selected aspects of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 69-99.
- Hoelter, J.(1984). Relative effects of significant others on self-evalua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 255-262.
- Jacob, T.(1975). Family interaction in disturbed and normal families: A methodological and substan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2, 33-65.
- Johnson, B. M., Shulman, S. & Collins, W. A.(1991). Systematic patterns of parenting as reported by adolescents: Developmental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outcome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6(2), 235-252.
- Justice, B. & Duncan, D. F.(1976). Running away: An epidemic problem of adolescence. *Adolescence*, 11(43), 365-371.
- Kelly, J.(1988). "Long-term adjustment a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 119-140.
- Litovsky, V. G., & Dusek, J. B.(1985). Perceptions of child rearing and self-concept development during the early adolescent yea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373-388.
- Manning, P. C.(1989). *Family functioning, sibling relationships, and a child self-esteem*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Institute of Integral Studies.
- Margolin, L., Blyth, D. A. & Carbone, D.(1988). The family as a looking glass: Interpreting family influences on adolescent self-esteem from a symbolic interaction perspectiv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8, 211-224.
- Montemayor, R.(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the amount of time adolescents spend alone and with parents and peers. *Child Development*, 53, 1512-1519.
- Montemayor, R.(1986). Family variation in parent-adolescent storm and stres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 15-31.
- Montemayor, R. & Hason, E.(1985). A naturalistic view of conflict betwee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 and sibling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5, 23-30.
- Prinz, R. J., Foster, S., Kent, R. N. & O'Leary, K.D.(1979). Multi-variate assessment of conflict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mother-adolescent dyad.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2, 691-700.
- Reich, W., Earls, F. & Powell, J.(1988). A comparison of the home and social environments of children of alcoholic and non-alcoholic parents.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3(7), 831-839.
- Richards, M. H., Gitelson, I. B., Petersen, A. C. & Hurtig, A. L.(1991). Adolescent personality in girls and boys: The role of mothers and fathers. *Psychology of Woman Quarterly*, 15, 65-81.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ter, M. A. & Conger, R. D.(1995). Antecedents of parent-adolescent disagreem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435-448.
- Silverberg, S. B. & Steinberg, L.(1987). adolescent autonomy,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parental well-be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293-312.
- Silverberg, S. B. & Steinberg, L.(1990). Psychological well-being of parents with early adolescent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4), 658-666.
- Slater, E. J. & Haber, J. D.(1984). Adolescent adjustment following divorce as a function of familial conflic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920-921.
- Small, S. A.(1985).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Perceptions of parent and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 Smetana, J. G.(1989). Adolescents' and parents' reasoning about actual family conflict. *Child Development*, 60, 1052-1067.

- Steinberg, L. D.(1981). Transformations in family relations at puberty. *Developmental Psychology, 17*(6), 833-840.
- Steinberg, L. D.(1987b). Recent research on the family at adolescence: The extent and nature of sex differences. *Journal of Youth and the Family, 16*(3), 191-198.
- Steinberg, L. D.(1988). Reciprocal relation between parent-child distance and pubertalmatu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122-128.
- Steinberg, L. & Darling, N.(1994). The broader context of social influence in adolescence. In R. K. Silbereisen and E. Todt(Eds.), *Adolescence in context*(25-45). New York : Springer-Verlag.
- Tomlison, R. K.(1991). Unacceptable adolescent behavior and parent-adolescent conflict.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8*(1), 33-51.
- Wylie, R. C.(1979). *The self-concept: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Vol. 2).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Young, M. H.(1993). *Parenting style and child behavior problems: A longitudinal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Utah State University. Ann Arbor MI: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